

정론 조선의 과학자

1

조국은 만리마이의 속도로 비약하고 있다. 무엇이 더해주는 슬기이고 힘인가. 무엇으로 하여 더욱 백배해지는 기상이고 신심인가.

조선의 과학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들여 키우시며 당의 무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과학자들은 조선의 힘이고 자랑이다. 머지않아 세계는 최악의 시련을 끌고 최고의 목표를 선행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다.

그 위대한 승리는 마치 낫과 칼 함께 불이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기의 눈부신 자체, 한편한 힘과 창물을 세어주는 가장 있는 중명으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기간에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 제 7 차대 회경축 광장을 지나 또다시 이어진 우리들의 계속혁신, 훤속풍격의 발걸음은 어디서부터 차自然而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를 충실히 조국과 인민 위해 몸사부우하는 당시에 대한 창조적인 영웅들의 진군으로 펼쳐졌다.

당 제 7 차대 회경축 광장을 지나 또다시 이어진 우리들의 계속혁신, 훤속풍격의 발걸음은 어디서부터 차自然而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를 충실히 조국과 인민 위해 몸사부우하는 당시에 대한 창조적인 영웅들의 진군으로 펼쳐졌다.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에서 우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창조자들, 조국에 위성이 필요하면 100% 국산화된 우리들의 위성을 세계하게 쓰워풀고 수소탄이 필요하면 수소탄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웅들, 자력자들의 정신에서도 제일이고 천불불굴의 공적정신에서도 최고이며 당과 협력에 대한 충성의 열도에도 유통되는 80미터트랙포트에도 울려보이고 우리의 힘으로 만든 풍력발전기이며 우리 나라의 자연자리적 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 맞게 만든 능기체들도 크고 나쁜 기압 속에 바쁘고 신우리 원수님, 자연의 깊이를 살피면서 그 깊은 바로 이 나라의 과학자들을 찾아가신 깊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주로를 과학으로 또다시 힘차게 그어주신 뜻깊은 걸음을 이었다.

적통의 이 시대를 전감하는 사변의 주인공들도 우리 과학자들이다.

2001년 전후의 불길드는 조국강산에 전승의 화재로 설레인다. 핵전력자산을 남조선에 투입하며 복원성장기에 열을 풀고 있는 원수들을 전용하게 하고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만리대공에로 이끌어온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관로드로트 『화성-10』 시대발사의 성공!

침략자 미제에 대한 불라는 증오로 달아 올랐던 6·25의 그날 수도 경양에 절쳐섰던 우리 국방과학자들에 대한 청양시민들의 열광의 환호는 과학의 위력을 통해 조국의 힘을 배여주며 또 하나의 승전을 얻은 차기의 미녀를 아들들에 대한 인민의 열회같은 사랑과 존경이 아니었던가.

조국의 북변 떡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새겨진 이야기.

올해 1월 수십명의 영웅과 수많은 로켓혁신자를 배출한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발전소건설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로부터의 창성을 받을 수 있다. 그처럼 저항한 창조대전의 빙 앞자리에 빛나던 이름, 그는 5월 2주 2종목을 아치연세설계로 꽁꽁리트랑은 3·4만m³, 괄착량은 2·4만m³나 되었지만, 철학자는 그에 맞춰 괄착률을 수여받았고 과학분야에 대한 인민의 열광과 존경은 조국에 대한 힘을 더해준다.

리제임, 김일성상제관원, 원사, 교수, 박사, 인민 과학자인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공헌한 우리 나라는 조국과학분야의 첫 세대 대표자이다.

리선호, 그는 벌써 30대 초에 로켓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과학분야에 쌓은 공적으로 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호발사와 국제도심설계와 성공 『광명성-3호』호 2호기발사성공에 기여한 세세대 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우리 당의 광복에서 영생의 언덕에 함께 오른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버지가 한생도록 걸은 길을 아들이 대통 이어 걸었고 그 길에서 또다시 열혈의 실장을 아낌없이 바친 불덩이같은 조국의 삶...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눈부신 영마루에 높이 올라선 조국의 승리에는 바로 이런 세계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무수히 흘러어져 있다. 조국의 승리에는 바로 이 시대를 펼치고 빛내이는 말리미제일기수-조선의 과학자들의 긍지높은 영예가 아니었던가.

과학전선, 이는 오늘 조국의 승리와 번영

의 표성없는 전구, 가장 적렬한 최전방이다. 많은 것이 여기에서 판가름된다. 힘의 우위를 폐벌이 군사기술적 우세를 제창하는 원수들을 통폐하게 후려치는 국방건설의 승리도, 고립입실에 미처 남뛰는 원수들이 보완되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비약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자력자강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히 과학의 길이기 천에 혁명의 길, 자립의 길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 당정책사수전이며 우리의 청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치열한 경급무관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뜻깊은가.

어제에 풀잎은 없지 않고 미리에 철갑으로 쓰지 않았어도 우리 과학자들은 무식의 흉검으로 조국을 수호하는 병사들처럼 과학의 보검으로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승리와 번영의 진군으로 옮겨가고 있다.

참으로 미덥고 자랑스럽다. 세상에 과학자들은 많아도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당파 협력에 충실히 조국과 인민 위해 몸사부우하는 당시에 대한 창조적인 영웅들의 진군으로 옮겨가고 있다.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에서 우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창조자들, 조국에 위성이 필요하면 100% 국산화된 우리들의 위성을 세계하게 쓰워풀고 수소탄이 필요하면 수소탄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웅들, 자력자들의 정신에서도 제일이고 천불불굴의 공적정신에서도 최고이며 당과 협력에 대한 충성의 열도에도 유통되는 80미터트랙포트에도 울려보이고 우리의 힘으로 만든 풍력발전기이며 우리 나라의 자연자리적 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 맞게 만든 능기체들도

크고 나쁜 기압 속에 바쁘고 신우리 원수님, 자연의 깊이를 살피면서 그 깊은 바로 이 나라의 과학자들을 찾아가신 깊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주로를 과학으로 또다시 힘차게 그어주신 뜻깊은 걸음을 이었다.

적통의 이 시대를 전감하는 사변의 주인공들도 우리 과학자들이다.

2001년 전후의 불길드는 조국강산에 전승의 화재로 설레인다. 핵전력자산을 남조선에 투입하며 복원성장기에 열을 풀고 있는 원수들을 전용하게 하고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만리대공에로 이끌어온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관로드로트 『화성-10』 시대발사의 성공!

침략자 미제에 대한 불라는 증오로 달아 올랐던 6·25의 그날 수도 경양에 절쳐섰던 우리 국방과학자들에 대한 청양시민들의 열광의 환호는 과학의 위력을 통해 조국의 힘을 배여주며 또 하나의 승전을 얻은 차기의 미녀를 아들들에 대한 인민의 열회같은 사랑과 존경은 조국에 대한 힘을 더해준다.

리제임, 김일성상제관원, 원사, 교수, 박사, 인민 과학자인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공헌한 우리 나라는 조국과학분야의 첫 세대 대표자이다.

리선호, 그는 벌써 30대 초에 로켓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과학분야에 쌓은 공적으로 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호 2호기발사성공에 기여한 세세대 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우리 당의 광복에서 영생의 언덕에 함께 오른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버지가 한생도록 걸은 길을 아들이 대통 이어 걸었고 그 길에서 또다시 열혈의 실장을 아낌없이 바친 불덩이같은 조국의 삶...

리제임, 김일성상제관원, 원사, 교수, 박사, 인민 과학자인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공헌한 우리 나라는 조국과학분야의 첫 세대 대표자이다.

리선호, 그는 벌써 30대 초에 로켓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과학분야에 쌓은 공적으로 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호 2호기발사성공에 기여한 세세대 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우리 당의 광복에서 영생의 언덕에 함께 오른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아버지가 한생도록 걸은 길을 아들이 대통 이어 걸었고 그 길에서 또다시 열혈의 실장을 아낌없이 바친 불덩이같은 조국의 삶...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눈부신 영마루에 높이 올라선 조국의 승리에는 바로 이런 세계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무수히 흘러어져 있다. 조국의 승리에는 바로 이 시대를 펼치고 빛내이는 말리미제일기수-조선의 과학자들의 긍지높은 영예가 아니었던가.

과학전선, 이는 오늘 조국의 승리와 번영

의 표성없는 전구, 가장 적렬한 최전방이다. 많은 것이 여기에서 판가름된다. 힘의 우위를 폐벌이 군사기술적 우세를 제창하는 원수들을 통폐하게 후려치는 국방건설의 승리도, 고립입실에 미처 남뛰는 원수들이

보완되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비약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자력자강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용서하시와 과학자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번영을 달고 품이 되여, 비록 한 토양이 되여 암자운 그 흙을 품으니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과학자, 그 부름속에 그처럼 빛나는 에국의 삶이 비껴있기에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물파구를 열어가는 과학자들의 창조의 힘들도 바로 과학전선이 암아오는 귀중한 열매들이다.

당의 국산화정책 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본보기 단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곡산공장을 돌아보고

주체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으로 새워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평양곡산공장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각지의 일군들과 파학자, 기술자들, 지식경제시대의 주인공들로 성장해가는 청년학생들...

국산화를 통해으로 하는 우리 식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 말그대로 온 공장이 꺼지도록 많이 찾았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길아래 마련된 든든한 토대와 고귀한 전통을 더욱 빛내여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이 여기 평양곡산공장에도 얼마나 드겁게 아파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금강, 기업소들이 수립법을 없애고 원료, 재자,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부정을 할지언정 대처에 대해서 내세운 현대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지난 6월 15일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다. 하지만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만면에는 시종 환한 힘과 열기를 달궜다.

하얀 색타일로 산뜻하게 장식된 건물들이 드넓은 공장구내로 푸르렀다. 뿐이나간 포장도구, 풀통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그만한 청진원과 풍성세계가 그대로 어려운 공장락이...

경치 좋은 휴양소에 들어선듯싶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식로공장이 아니리 훤 위있는 파학연구기관을 향상해 하기도

하는 통경이었다. 절불아이라고 모든 생신공장을 일신한 공장의 현대화수준을 풍광구내에서부터 느낄수 있었다.

지금도 누구나 이 곳에 서면 좋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공장을 찾으시어 정양곡산공장을 정말 훌륭히 개선하였다고,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새로 주된 혁명사적 교양실과 혁명소개실부 터 돌아보시었다고 한다.

공장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을 보여주는 차로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정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공장이 대규모의 석로 아기기로 전변되었다고.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던 날을 강회길이 회고하시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과류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우리는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아 공장에 어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 사직을 두들보면서 그에 대해 하여 잘 알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새로 주된 혁명사적 교양실과 혁명소개실부 터 돌아보시었다고 한다.

공장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을 보여주는 차로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정도와 세심한 보살

피심에 의하여 공장이 대규모의 석로 아기기로 전변되었다고.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던 날을 강회길이 회고하시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과류

생각하고 피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술을 깊이 드니 우연히 밤이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던 날을 강회길이 회고하시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과류

생각하고 피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술을 깊이 드니 우연히 밤이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로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업적이 것들에 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신공장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힘과 힘과 영양가들은 서로 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공장에서 당과류를 높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물량의 평도

이 여기 사랑직장에 그대로 미껴있었다. 공장책임인군의 실명을 불으시며 생

산설비들을 보고 또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설비가 열

마나로 좋은가고 이것이 바로 미남

자원비이며 유통, 나파에 자랑하라고 거듭이 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일군

들은 현대화의 힘의미를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면에 아름답게 보이시였다.

95% 이상 보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면에 아름답게 보이시였다.

그들이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면에 아름답게 보이시였다.

마음에 듣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를지어주신 육당을 주제로 빛내

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당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장들의 자동화, 흐름

설비를 높은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이루고 업적한 풍질검사체계까지 확

립니다. 그리고 풍질검사체계를 규칙

화하고 풍질검사체계를 규칙화하고

제작된 풍질검사체계를 규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은 통할수 없다

최근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과 달리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 적지구에서 절길에 악설들이 미구에 풀어나오고 있다. 박근혜가 제 20대 《국회》 개원식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낸 영상에 배치되는데서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러시아인의 힘들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그 이후에도 핵의 역사는 여기저기 코를 들어밀고 《북의 핵과 미싸일이 세계를 위협한다.》느니, 《성공할수 없다.》느니 하고 더러운 주동이를 헐떡이고 있다. 독실스러운 진진자의 맛언을 따라 핵외교부와 통일부의 어중이며 중이를 저어마다 《핵위협》을 염두에 두며 외위대에 어른을 이지털하고 있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며 미국의 핵선제 공격수단들을 하나둘 더 끌어들이지 못해 앞당기면서 온 날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화악고로, 북핵위협 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외세와의 핵전쟁사연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심히 위협하는 반역이들이 도리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로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의들이 《북핵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것은 외세의 핵여승군, 구악한 대결 전쟁 팽신자로서의 저들의 반역적 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의 이목을 떼어내고 떠들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모략과 날조선이 이를 떠나는 데까지 봄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공격에 동은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물끌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미국파의 침략적인 공모 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요즘 정대와 《새누리당》 내부에서 미국파의 《성공》 강화가 《북의 핵, 미군을 사용할 범죄적 행위를 꾸미었으며

전후에는 날조선에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피뢰를 파 향에 대규모의 북침핵전쟁습들을 넘어 풍차처럼 벌써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배일, 즉 시간 핵위협을 가하였다. 그 희생으로 사대대국은 피뢰제당의 고유한 생리이며 궁지에 몰릴 수록 미국의 웃자락을 불들고 놓지 못하면서 그의 광포하여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팽만하는 것도 이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에서 본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날조선 피의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목더지게 떠드는 것은 북침을 위한 미국파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여 대세의 호흡을 되돌려세우고 파멸을 모면해 보려는 단 말마적인 발악이다. 박근혜제당은 날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풀빛이 쓰이려고 있는가 가운데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위험한 불상난소통을 매일과 같이 밀려놓는 한편 대북핵공조를 윤운하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피의들이 그 누구의 《위협》 설을 내밀려는 것은 대거이 난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판지과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끝음을 광복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갈수록 침에해지고 있다. 바로 이런 때에 박근혜제당이 《북핵위협》 타령을 미친듯이 늘어놓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날조선서기전쟁에 풍족에 대한 적의식을 밟아놓고 대결분위기로 고집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계속 강행하는데 있다.

지금 피뢰보수제당은 구도의 통치위기 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대적오적인 《핵위협》은 날조선민심의 저주와 규한 면치 못하고 있다. 살상가상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청원자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이 하루도 그지치 않고있다. 집안에 당조가 베미다 통족대결소동을 강화하여 민심의 이득을 떤데로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피뢰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 박근혜와 그 팔개들이 저지마다 《북핵위협》에 대해 오만스럽게 떠들어대며 암미구리 끝을 하는 피면에는 바로 그런 흥악한 기도가 가능하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공조와 통족대결에 매달리며 온갖 반역행위를 일삼는 피뢰당을 그대로 둘리면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민족의 미래에 해재난이 끌려워지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런 민족의 우환거리, 역사의 오만단지들은 한시미비 제거해버려야 한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끝음을 광복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갈수록 침에해지고 있다. 바로 이런 때에 박근혜제당이 《북핵위협》 타령을 미친듯이 늘어놓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날조선서기전쟁에 풍족에 대한 적의식을 밟아놓고 대결분위기로 고집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계속 강행으로 되고있음을 반증해줄뿐이다.

박 철 준

침략자, 폐전자들의 추악한 광대극

6. 25를 계기로 미국과 남조선피의들이 지난 조선전쟁의 불길을 티드린 노발자로서의 저들의 경제를 가리우기 위한 《행사》를 또다시 펼쳐놓았다. 북침을 《남침》으로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야 저들의 폐전자들을 승진사로 바꾸어 놓을수 있다 고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가란은 그 《행사》라는 것이 규모도 불풀없고 한다는지도 풀풀전이어서 그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평화한 광대극으로 되고만 것 이었다.

광대극의 무대는 워싱턴에 있는 《조선전쟁기념공원》이었다. 언제 설립되었는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똑똑히 알지도 못한 《조선전쟁기념사업재단》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단체와 미국주재 남조선피의 대사관이 개최하였다고 하 는 6월 2일 《행사》가 기껏해야 지난 조선전쟁시기 피뢰군으로서 미군에 배속되어 출전하였 이로 나섰다가 계죽음을 당한 《지원단전사자》와 같은 피리에 태장을 그대로 둘리면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민족의 미래에 해재난이 끌려워지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런 민족의 우환거리, 역사의 오만단지들은 한시미비 제거해버려야 한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피의들이 그 누구의 《위협》 설을 내밀려는 것은 대거이 난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판지과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개는 젖어도 행운은 나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맡아온 박근혜에게 그 차지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교한 담동이다.

피뢰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와 평화로호적인 대화요구를 전면지우하고 무한도주장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이 《북핵위협》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